

높이 1,000m의 호주 솔라타워



▲ 세계 최고 규모의 태양열 발전탑이 될 호주 솔라타워 조감도

새로운 형태의 그린에너지를 확보하려는 대모험이 호주 외곽지역에 높이 1,000m, 직경 7Km의 초대형 태양열 발전탑이 건설될 예정이다.

솔라타워라고 불리는 이 건축물은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절대 안전하고 무공해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계획이다. 만일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그 발전소의 높이는 캐나다의 CN타워(553m)

의 거의 두 배 높이가 될 전망이다.

솔라타워는 가마솥 뚜껑의 형태로 탑 밑둥은 축구장 넓이다. 중심은 비어 있으며 굴뚝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다. 여기에 소요되는 건축재는 유리나 투명 플라스틱 20km², 시멘트가 수백만부대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.☉